

전기전자 산업

CXMT 및 중국 반도체 굴기 관련 국내 수혜주 찾기 (Feat. 와이어본딩, 솔더볼)

CXMT 및 중국 반도체 업체의 국내 Value-Chain 수혜 예상

- CXMT의 성공적인 IPO 이후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. CXMT는 금번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erver용 DDR5, LPDDR5x 수율 최적화 및 DDR6 제품 개발에 활용 예정. Memory 공급 부족 상황 속 CXMT의 금번 IPO로 인한 자금 조달로 인해 Capa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관련 Value-Chain들의 수혜 예상

국내 후공정 소재 업체들은 이미 중국향 실적 성장 진행 중

- 국내 업체 중 중국향 Exposure가 높은 업체 중 반도체 후공정 소재(Solder Ball, Bonding Wire)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. 이들 업체는 중국뿐 아니라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높은 M/S를 유지. 특히 Solder Ball과 Bonding Wire의 국내 업체의 주요 경쟁 대상은 일본인데, 중국에 서는 일본보다는 국내 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점유율 격차가 높음. 즉, Solder Ball, Bonding Wire의 중국 내 M/S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가 사실상 선두업체임(로컬 업체와는 기술격차 존재)

- 국내 후공정 소재업체들의 중국 내 주요 고객사(직접 고객사)는 중국의 Local OSAT 업체임. 중국 후공정 업체는 이미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더불어 빠르게 실적 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글로벌 OSAT Top-tier의 반열에 합류하고 있음. 실질적으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성장과 정비례

- 또한, 중국 OSAT 업체들의 성장과 더불어 주목할 점은 국내 업체들의 중국향 실적도 빠르게 확대된다는 것임. 1Q26기준 중국향 매출은 엠케이전자는 YoY +155%, 덕산하이메탈은 YoY +120% 성장하였으며, 이러한 흐름은 2분기에 이어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. 엠케이전자의 중국법인 실적 개선세는 매우 가파른 수준이며, 1Q26 연결 기준(한국토지신탁 제외) 영업이익 비중의 46%를 차지할만큼 이익 기여도가 매우 높은 편임. 덕산하이메탈 역시 1Q26 별도 매출 기준 중국 비중이 15% 수준이며, Capa 증설(약 30% 수준)은 중국향 물량 증가에 대한 대응이 주된 것으로 추정됨. 두 업체 모두 중국향 비중이 이미 높고 Q 성장 역시 매우 가파른 상황

투자전략: '글로벌 AI H/W의 수요 성장+중국 모멘텀'으로 인한 후공정 소재 업체에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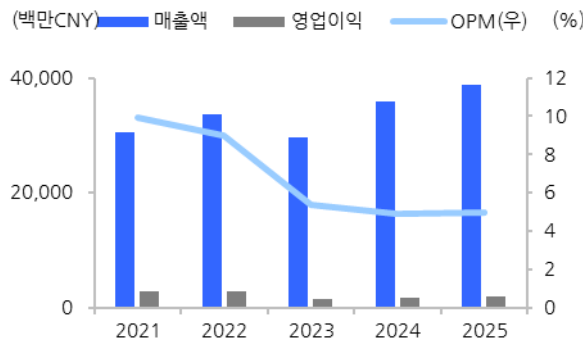
- 국내 후공정 소재 업체들은 AI Value-Chain 내 Upstream 업체로서 전방 수요와 동행하여 빠른 실적 개선세 시현하나 최근 주가 조정과 더불어 매우 매력적인 Valuation 구간에 진입. 다만, Fundamental는 오히려 더욱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, 중장기적 수요에 대비하는 모습

-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CXMT로 인한 중국향 Exposure에 대한 Fundamental은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보여짐. 덕산하이메탈의 경우 CXMT 내 Solder Ball M/S가 약 80% 수준으로 추정되고 CXMT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동사의 Solder Ball 역시 성장 기울기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. 엠케이전자는 도금 와이어 수요에 대해 사실상 중국 내 높은 M/S를 유지하고 있고 덕산하이메탈과 마찬가지로 중국 반도체 굴기와 더불어 성장 모멘텀을 더욱 확보할 것으로 전망. 제한된 공급 상황 속 이중 수혜가 가능한 국내 반도체 후공정 소재 업체에 대해 주목할 필요

OVERWEIGH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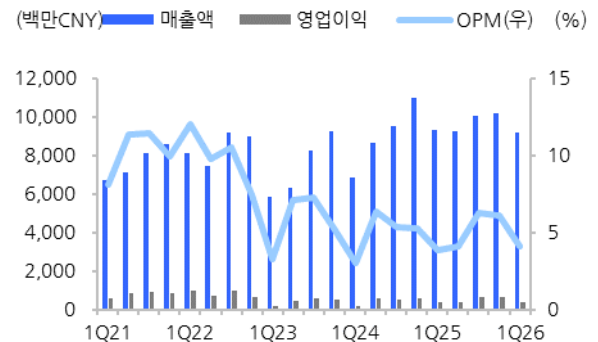
Analyst 김중배 kjb6551@hmsec.com

〈그림1〉JCET 연도별 실적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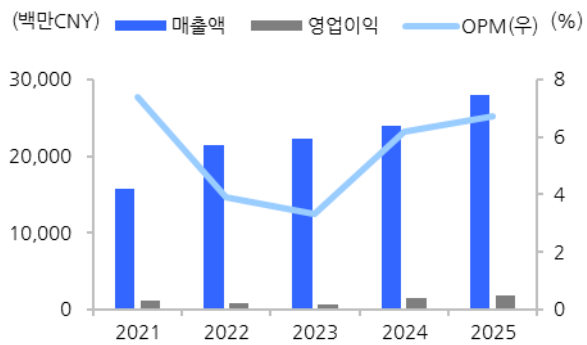
자료: JCET, 현대차증권

〈그림2〉JCET 분기별 실적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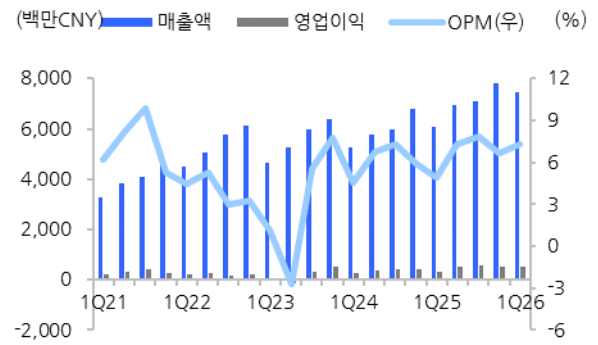
자료: JCET, 현대차증권

〈그림3〉Tongfu Microelectronics 연도별 실적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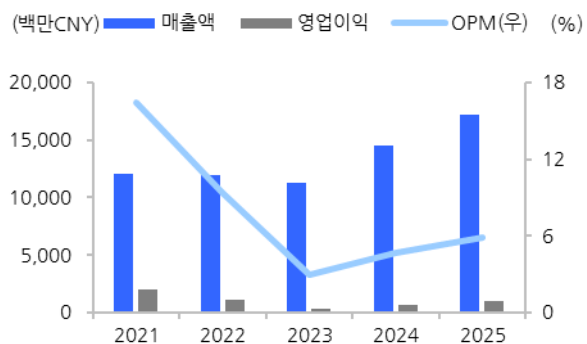
자료: Tongfu Microelectronics, 현대차증권

〈그림4〉Tongfu Microelectronics 분기별 실적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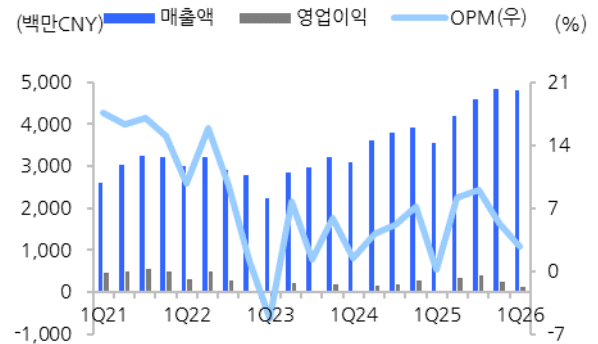
자료: Tongfu Microelectronics, 현대차증권

〈그림5〉Huatian Technology 연도별 실적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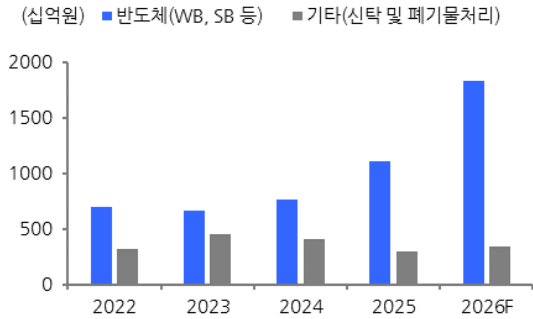
자료: Huatian Technology, 현대차증권

〈그림6〉Huatian Technology 분기별 실적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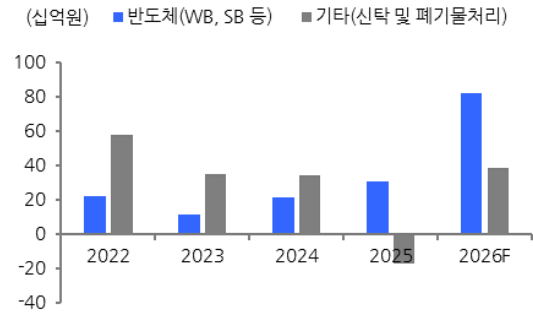
자료: Huatian Technology, 현대차증권

〈그림7〉 엠케이전자 사업부별 매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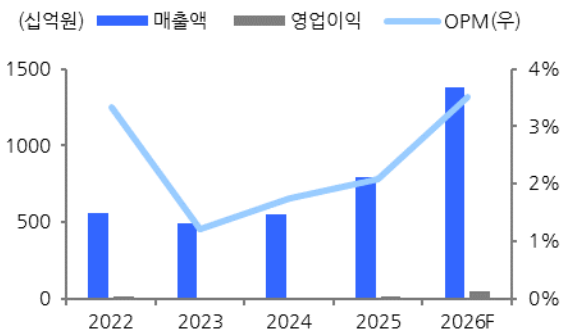
자료: 엠케이전자, 현대차증권

〈그림8〉 엠케이전자 사업부별 영업이익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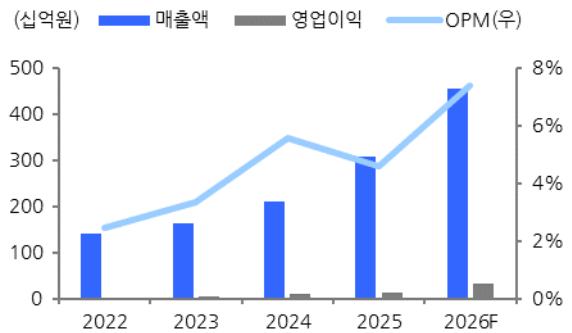
자료: 엠케이전자, 현대차증권

〈그림9〉 엠케이전자 국내법인 실적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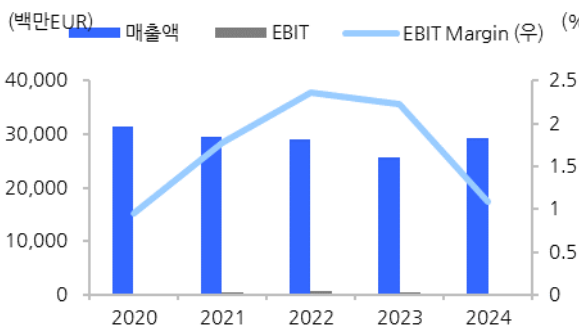
자료: 엠케이전자, 현대차증권

〈그림10〉 엠케이전자 중국법인 실적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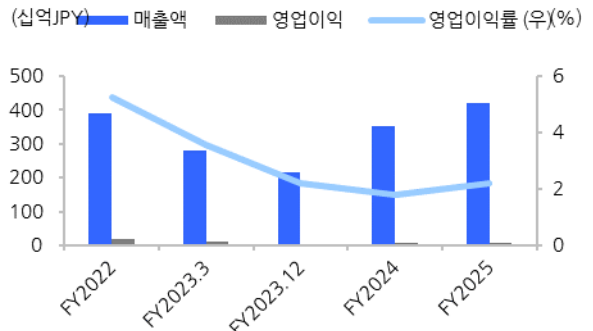
자료: 엠케이전자, 현대차증권

〈그림11〉 Heraeus 연간 실적 추이



자료: Heraeus, 현대차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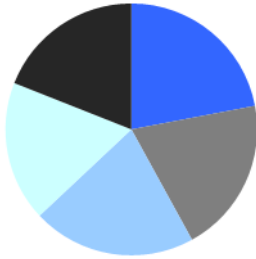
〈그림12〉 다나카금속 연간 실적 추이



자료: 다나카금속, 현대차증권

〈그림13〉 글로벌 본딩와이어 점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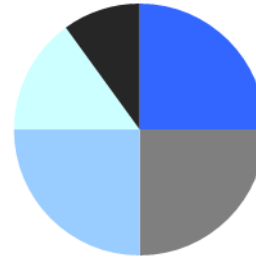
■ MK전자 ■ Tanaka ■ NMC ■ Heraeus ■ 기타



자료: 엠케이전자, 현대차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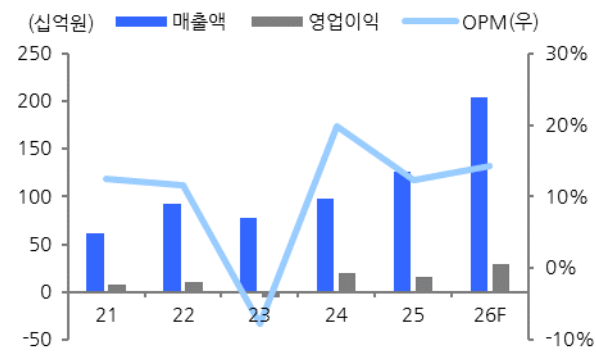
〈그림14〉 글로벌 솔더볼 점유율

■ Senju Metal ■ 덕산하이메탈 ■ Accurus ■ MK전자 ■ 기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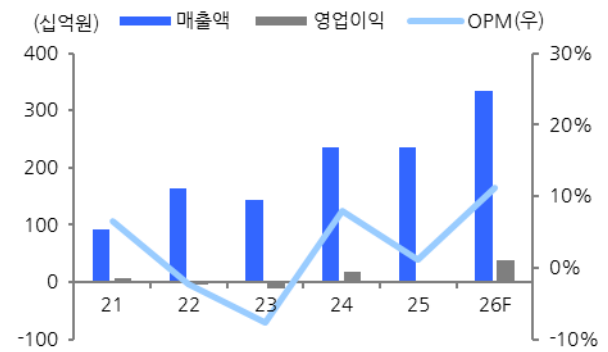
자료: 엠케이전자, 현대차증권

〈그림15〉 덕산하이메탈(별도) 실적 추이



자료: 덕산하이메탈, 현대차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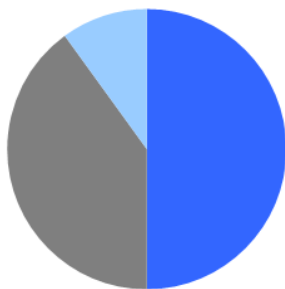
〈그림16〉 덕산하이메탈(연결) 실적 추이



자료: 덕산하이메탈, 현대차증권

〈그림17〉 Solder Ball 글로벌 시장 점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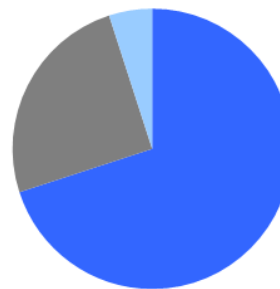
■ Senju Metal ■ 덕산하이메탈 ■ Accurus 및 기타



자료: 현대차증권 추정

〈그림18〉 Micro Solder Ball 글로벌 시장 점유율

■ 덕산하이메탈 ■ Senju Metal ■ Accurus 및 기타



자료: 현대차증권 추정

▶ Compliance Notice

-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) 발행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
-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-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김종배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▶ 투자 의견 분류

- ▶ 업종 투자 의견 분류 현대차증권의 업종투자 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.
 - OVERWEIGHT: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
 - NEUTRAL: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
 - UNDERWEIGHT: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

- ▶ 현대차증권의 종목투자 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.
 - BUY: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+15%P 이상
 - MARKETPERFORM(M.PERFORM):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-15% ~ +15%P 이내
 - SELL: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-15%P 이하

▶ 투자등급 통계 (2025.07.01~2026.06.30)

투자등급	건수	비율(%)
매수	189건	95.5%
보유	9건	4.5%
매도	0건	0%

-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